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 은 승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현 미 라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 은 승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현 미 라

인 준 서

현미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결혼만족도와 자기분화, 부부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기혼남녀 28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여 2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자기분화, 긍정적 의사소통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자기분화 하위요인(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융합)별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의사소통은 정서적 단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융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는 모두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정서적 단절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6
1. 중년기	6
2. 결혼만족도	7
3. Bowen의 자기분화	9
1) 자기분화의 개념	9
2) 자기분화의 하위개념	11
4. 의사소통	14
5. 결혼만족도와 자기분화와의 관계	17
6.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18
7.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20
8.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자기분화와의 관계	21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22
IV.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측정 도구	24

3. 연구절차	28
4. 분석방법	29
V. 연구 결과	30
1.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	30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2)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33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35
3.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36
4. 매개효과 검증	37
VI. 논의 및 제언	46
1. 결과에 대한 논의	46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5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자기분화 척도 신뢰도 분석결과	27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집단 수준의 차이	33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35
<표 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36
<표 6>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38
<표 7> 부트스트래핑 결과	39
<표 8> 자기분화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I	41
<표 9> 자기분화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II	43
<표 10>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4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	23
<그림 2> 연구모형2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년기는 발달 과정에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신을 성찰하고 재평가하는 시기이다(김경신, 김경란, 2001; 김명자, 1989; 김희경, 2006).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다양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정체감 위기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지내왔던 부부도 자녀의 독립으로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서먹함과 공허감을 느끼며,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성격차이 등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거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명자, 1989; 김명희, 최연실, 2007).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원가족에서 형성된 양육태도와 가치관, 성격차이, 성생활, 의사소통, 자녀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기는 하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별거, 이혼등과 같은 가족해체에까지 이를 수 있다(김아영, 조영주, 2018; 송동립, 2009; 이윤주, 2011).

뿐만 아니라 중년기는 사회에서 경제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에서는 노부모 부양과 동시에 자녀의 교육과 정서적·경제적 독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으로 인해 자녀들의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정작 자신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부부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유숙인, 서미아, 2015; 이은영, 왕은자, 2017).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50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육체적 학대 순이다. 이 중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가

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다(통계청, 2019).

부부 생활에 있어 결혼만족은 부부관계의 질을 표현하고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경험으로, 부부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권정혜, 채규만, 1999). 결혼만족은 부부의 심리적 고통이나 각종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한다(이정은, 이영호, 2000; 지혜정, 2006; 한혜영, 현명호, 2005). 따라서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학력, 결혼연령, 경제적 수준,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자기분화, 자존감, 성역할 태도, 우울, 불안 등), 환경적 요인, 상호관계적 요인(의사소통, 갈등해결 행동, 부부갈등, 부정적 대처행동 등)에 영향을 받는다(김민희, 민경환, 2007; 서해정, 김형모, 2009; 송진경, 채규만, 2008; 유수진, 류정희, 2017).

Bowen(1978)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표면적으로는 부부간의 정서 또는 애정 관계이지만, 대상관계 성숙도 즉, 자기분화 수준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박경순, 2013). 자기분화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개인 내면의 심리적인 면과 자기의 특성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김병화, 송정아, 2014). 자기분화는 가족 및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및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며, 자기분화를 바탕으로 이성과 감정의 균형, 연합성과 독립성의 균형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김은자, 정혜정, 신유순, 2016; Bowen, 1978).

Bowen(1985)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자기분화를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타인과 상호작

용하고,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획득해야 하는 자기분화는 원가족의 정서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유전적 계통과 정서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며 반응하는 양태가 맞물린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박상숙, 2012; 이종원, 옥선화, 2015). 어린 시절에 습득되고 경험한 것은 한 개인의 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재의 가족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원가족의 정서체계는 다세대에 걸쳐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이종원, 옥선화, 2015). 원가족으로 부터 획득한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는 심리적 안정과 균형을 이루어, 갈등에 직면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는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Bowen, 1976). 즉, 자기분화수준이 낮을수록 갈등에 직면하여 부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고, 부부간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경멸, 상처, 비난, 거부감 등을 보다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게 된다(김아영, 조영주, 2018; 유숙인, 서미아, 2015).

한편, 부부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며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호 관계적 요인인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친밀성을 증대시키고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박수경, 2015).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진시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하지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 방해요인이 되기도 한다(김금희, 2016; 황민혜, 고재홍, 2010).

부부가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부 간 역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부부 간 의사소통을 저해하며, 이는 어린시절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김금희, 2016; 이지민, 2013).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

고 형성된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한 후에 부부관계에서 사소한 갈등상황에서도 과민반응을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지속되는데, 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었던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가장 편안한 관계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발산되어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임영례, 2018; 이종원, 옥선화, 2015; 전연진, 2002). 부부 간의 갈등상황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투사하고 융합하는 공동 자기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긴장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와 정서적 거리두기를 유발하게 된다(Bowen, 1976). 이러한 정서적 거리두기를 정서적 이혼이라 하며, 정서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의사소통은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별거 혹은 이혼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게 한다(백정미, 2018; 이종원, 옥선화, 2015; 이주연, 정혜정, 2009). 결국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은 긍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갈등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임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결혼만족도의 증진과 결혼생활의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다(권정혜, 채규만, 1999; 김진분, 최규련, 2007; 박태영, 김선희, 유진희, 안현아, 2012; 송정아, 1996; 장문선, 김영환, 2002; 한혜영, 현명호, 2005). 특히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대처기술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김영환, 장문선, 2002; 박은아, 이정우, 2003; 임나현, 하규수, 201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분화와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중년기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 개인의 자기 분화 수준에 대한 탐색과 이해, 긍정적인 의사소통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상담현장에서 부부 갈등과 위기를 보이는 중년 부부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어 가는 전환점으로서 갱년기와 노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불안, 짜증, 피로, 자신에 대한 연민과 우울을 경험하며, 사회적으로 절정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은퇴를 통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다(김명자, 1989; 김희경, 2006).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는 중년기는, 자아성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는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경신, 김경란, 2001; 김명자, 1989).

그동안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에서 분리된 하나의 단계로 인식되어 왔으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중년기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로 무의식속에 남아있었던 잠재력이 성장을 위해 개발되는 시기로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영수, 2018).

Jung(1954)은 중년기를 40세 이후로 보고 젊은 시절 꿈꾸었던 목표를 성취하고 절정에 이르러, 삶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김경신, 김경란, 2001; 이승화, 민경화, 2015). 그래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가치 있는 일을 찾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나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때 위기가 올 수 있다(김영수, 2018).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 이후에 경험하는 서먹함과 공허함으로 우울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부부도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김명자, 1989; 김명희, 최연실, 2007).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별거나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에까지 이를 수 있다(김아영, 조영주, 2018; 송동립, 2009; 이윤주, 2011).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을 나타내고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에서 직면하는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한다(권정혜, 채규만, 1999; 송정아, 1995). 그러므로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높은 결혼 만족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만족에 대한 견해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결혼 적응, 결혼 안정성, 삶의 만족, 결혼 만족, 결혼의 질, 결혼행복’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계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3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세부적인 개념들로 더욱 구체화되어 지금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임준호, 2017).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혹은 태도를 나타내는 결혼만족도는 범위에 따라 크게 이자적 관점과 포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적 관점에서 결혼만족도는 사회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개인이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나타내며, 포괄적 관점에서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를 확장시켜 자녀와 환경, 그리고 친족까지 포함한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갖는 욕구

와 기대가 부부 상호작용에 의해서 충족되고 보상되는 정도로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권선립, 이선화, 신지영, 천성문, 2012; 임준호, 2017; Lewis & Spanier, 1979).

결혼에 대해 117개의 중단적 연구를 한 Karney와 Bradbury(1995)의 연구에서는 결혼의 성과, 적응과정, 개인의 취약성, 생활스트레스를 함께 다루어야 결혼생활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을 연구한 허미화(2004)는 결혼만족이란 한 개인이 결혼생활에 가지는 주관적 태도로 결혼의 상태가 아닌 변화할 수 있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중년기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윤정·최윤희(2004)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적응, 결혼행복, 결혼안정 등의 용어와 비슷하나 이러한 개념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결혼생활 전반의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갈등, 성적 만족, 비합리적 신념, 성격, 애착, 의사소통, 자기분화로 나타났다(김윤정, 서성희, 2005; 유채영, 김정득, 2009; 이진수, 2016; 하상희, 정혜정, 2000; 한영숙, 2007).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수직적인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생활에서 불만족이 증가했음을 말하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의 여성이 앞으로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권정혜, 채규만, 1998; 김민희, 민경환, 2007; 김영애, 김경신, 2013).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과 소득에서의 만족이 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성을 가지므로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으며(김영애, 김경신, 2013; 조성희, 박소영, 2010; 함진옥, 조인주, 2012; 홍구화, 서영옥, 2012), 부부가 같은 종교

적 활동을 할 때에도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김병화, 송정아, 2014; 이희운, 조유현, 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평가 또는 태도로, 결혼에 대한 기대와 결혼생활 결과에 대한 평가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기초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권정혜, 채규만, 1998)를 통해 중년기 기혼 남녀의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3. Bowen의 자기분화

1)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의 의 개념

분화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감정적 과정이다. 개인의 정서체계 안에 공존하는 개별성과 연합성은 한 개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개인이 관계 안에 지나치게 연합되어 있으면 개별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한 개체로 지나치게 고립되어 있으면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을 구하기 위해 연합성을 피하게 된다. 이렇게 관계 안에 나타나는 개별성과 연합성의 차이는 자기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2, 1993; 하상희, 정혜정, 2008).

Bowen이론의 핵심개념인(Bowen, 1976, 1978) 자기분화는 사고와 감정의 균형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율적이며 타인과 융합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독립성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병화, 송정아,

2014; 이주연, 정혜정, 2008). Bowen은 자기분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동이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이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생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아이는 엄마와 공생상태(미분화)의 삶을 시작으로 엄마가 제공하는 충분히 좋은 환경(안아주기)과 공감을 바탕으로 돌봄 받은 기억과 내용을 내사하고 축적하여 엄마의 돌봄이 없어도 분화되어 스스로의 삶(분화 또는 개별성)을 시작한다(김판기, 2010; 문성호, 2001; 정은, 1996). 그래서 Bowen을 비롯하여 일부 가족체계론자들은 자기분화를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김정택, 심혜숙, 1992; 이종원, 옥선화, 2015; 하상희, 정혜정, 2008).

자기분화는 이성과 감정의 분리를 나타내는 심리내적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타인(원가족)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되어 기능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차원으로 적절한 애착과 연결감 그리고 친밀감을 내포하는 개념이다(김판기, 2010; 문성호, 2001). 심리내적차원에서 자기분화는 지적기능과 정서적 기능 간의 균형으로 자신의 감정과 사고로부터 얼마나 잘 분화되었는가를 의미한다(김병화, 송정아, 2014; 김혜숙, 2016). 따라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균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사고로 유연하고 적응적이며(김아영, 조영주, 2018),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는 생활을 하고 긴장과 갈등상황에 직면하여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한영숙, 2007). 반면,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융합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반사 행동이 많고(이봉은, 김세경, 천성문, 2017), 자신과 융합되어 객관성이 떨어지며 불안수준이 높아 독립적이고 명확한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가치관과 신념의 부족으로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아 긴장이

나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김병화, 송정아, 2014).

대인관계 차원에서 자기분화는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분화를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을 타인과 분리시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즉, 관계에서 자기 입장(I-position)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강은숙, 박정희, 2005; 정성경, 김정희, 2014; 한영숙, 2007; 하상희, 정혜정, 2008). 따라서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참자기(solid self)가 발달되어,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며 주위압력에 굴하지 않고 명확한 사고와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는 일관된 자기로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 그러나 자기분화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따라 쉽게 변하는 거짓자기(pseudo-self)가 발달한다(배선영, 이인수, 2018; 하상희, 2007; 한영숙, 2007). 진짜를 대신하는 거짓자기는 생애 초기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서 순응을 요구할 때, 다시 말해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아이는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의 기대를 내사하여 실제로 부모의 기대가 자신의 것인 양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아이에게 자발성을 상실하고 모방과 순응을 특징으로 갖게 한다. 그 결과 거짓자기는 대부분 일과 사회상황에서 공손하고 예의바른 사회적 태도로 나타난다. 결혼생활에서도 정서적으로 긴장된 상황에 직면하면 ‘~척하는’ 가장된 거짓자기 형태가 나타난다(강초영, 2016; 김판기, 2010; 이정란, 2007). 그러므로 자기분화는 그가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타인과의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자기분화 성취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분화의 하위개념

(1) 핵가족 정서체계 - 핵가족 정서체계는 단일 세대 가족내의 정서적 기

능으로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서로 강하게 결속된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미분화된 가족 내에서 긴장이나 불안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가족들의 역기능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핵가족 정서체계라고 한다(김영근, 2011; 김정택, 심혜숙, 1992; 허정, 2005).

(2) 삼각관계 - 정서체계의 기본요소인 삼각관계는 가장 작고 안정된 관계 단위로 역동적인 균형을 나타낸다. 자기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친밀감과 거리두기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긴장을 제 삼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불안정한 관계에 안정을 찾고자 한다(고병인, 2000; 김정택·심혜숙, 1992; 정은, 1996).

(3) 가족투사과정 - 가족투사과정은 부모의 미분화가 감정적 불안정을 다루기 위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가족의 어떤 증상이 세대 간에 전수되는 과정을 말한다(김정택, 심혜숙, 1992; 박상숙, 2012; 박희정, 2018; 정은, 1996).

(4) 다세대전수과정 - 다세대전수과정은 삼각관계와 가족투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미분화된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자신의 낮은 분화수준을 자녀 중 한명에게 전수하며 그 자녀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투사과정을 말한다(김영근, 2011; 김정택, 심혜숙, 1992; 전연진, 2002; 하상희, 2007;).

(5) 형제자매 위치 - 출생순위에 따라 성격이 독특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Toman(1961)의 영향아래, Bowen(1966)은 자녀들의 위치와 자기분화 수준을 연관시켰다. 즉, 출생순위가 어떻게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는지, 개인

이 결혼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이해를 돕는다 (김정택, 심혜숙, 1992; 정은, 1996).

(6) 정서적 단절 - 정서적 단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 혹은 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과 불안을 다루기 위해, 자신을 고립시키고 가족과 정서적 접촉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특성을 나타낸다(고병인, 2000; 김정택, 심혜숙, 1992; 유숙인, 서미아, 2015).

(7) 사회적 정서과정 - Bowen(1975)은 가족의 기능을 사회의 기능과 연관시켜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도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즉,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위치에 따른 비난과 불안이 증가하면 역기능이 나타나고, 이는 가족 안에서도 분화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택, 심혜숙, 1992).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기분화는 심리내적인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리내적 수준의 자기분화란 지성과 사고가 발달되는 것을 말하고, 대인관계적 수준의 자기분화란 가족관계 안에서 또는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유지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은자, 정혜정, 신유순, 2016; 조은경, 정혜정, 2009). 낮은 분화 수준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끌어들이며 삼각관계를 형성한 후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의 자기분화에 손상을 입힌다. 이러한 미분화로 인해 부부관계 및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은 정서적 접촉을 피하고 거리감을 두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역기능적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문화는 서구에 비해 정서적 문화가 억압되어 있고 개인의 위치 또한 가족의 정서체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 혹은 밀접한 관계로 결합된 정서성이 특징이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는 2개의 차원과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있으며, 2개의 요인은 심리내적인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을 나타낸다. 심리내적 차원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을 포함하며, 대인관계적 차원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을 포함하고, 정서적 융합은 심리내적인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인간이 언어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포함한 상징을 사용하여 의미를 창출하고 그 의미를 상대와 공유하는 과정이다. 대인관계에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는 의사소통은 가장 밀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선, 이경재, 2015).

부부간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눈 맞춤, 얼굴표정, 공간적 거리, 움직임 등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매개물을 사용하여 의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관계유지의 핵심이며 부부간의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선, 이경재, 2015; Noller & Fitzpatrick, 1990). 부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말,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등)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면서 개인의 만족과 상호 신뢰감을 증진시키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질을 잘 예측하게 한다(권윤아, 김득성, 2008; 변지영, 양혜정, 2018). 그러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박민지, 2006).

부부 각자는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터득하고 학습하여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우자와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한다. 즉,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었을 경우, 학습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사소한 갈등상황에서도 과민반응을 보이고 부부갈등을 악화시켜 이혼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이종원, 옥선화, 2015; 이지민, 2013). 그러므로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문제와 부정적인 대응방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부부갈등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김금희, 2016; 김정민, 2011).

Hendrix(1999)는 부부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반영과 공감, 인정을 제시하였다. 반영은 배우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돌려주는 것이고, 공감은 배우자가 경험한 감정을 반영해주고 공감하는 것이며, 인정은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금희, 2016). 그러므로 부부간 친밀감을 높이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관습과 대물림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김명희, 최연실, 2007; 이희윤, 조유현, 2015; 최성애, 2013).

Gottman과 Levenson(2000)은 불행한 부부의 7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이 높고, 의사소통의 위험요인(방어, 비난, 담쌓기, 경멸)이 자주 나타나며,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각자 외롭게 지내며, 진정되지 않는 흥분상태가 지속되고, 남편이 아내의 영향력(말이나 태도)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부이다(김혜원·한소영, 이지연, 2017; Gottman & Levenson, 2000). 그러나 부부사이의 긍정적인 감정이 이혼을 예방하고 부부

관계를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부부사이의 긍정적인 감정이 누적되어 정서적인 은행잔고가 축적되면 긴장과 갈등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강혜숙, 김영희, 2008; 송진경, 채규만, 2008; 홍순건, 채규만, 2010). 부부의 긍정적 시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한 Gottman은 불행한 부부의 싸움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보다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는 긍정적 대화가 부부 친밀감을 높이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변지영, 양혜정, 2018 ; 지현영, 2017; 홍순건, 채규만, 2010).

이와 같이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상황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로에게 집중하여 경청하고 공감하며 지지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긴장과 갈등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친밀감을 유지시켜 신뢰감 높임으로써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권윤아, 김득성, 2008;; 박영화, 고재홍, 2005; 이봉은, 김세경, 천성문, 2017; 임영례, 2018). Bienvenu(1970) 역시 부부간 의사소통을 느낌, 태도, 신념,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상대방의 견해에서 문제와 차이점을 지각하며 그에 대한 의미와 느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청하고 상대를 이해하려하며 자신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가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5. 결혼만족도와 자기분화와의 관계

부부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결혼만족은, 부부 각자가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분화수준을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원가족에서 달성한 자기분화의 정도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율성과 독립성은 부부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인다(이소미, 고영건, 2009; 오종현, 2016; 조은경, 정혜정, 2009; 한영숙, 2007).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분화는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림, 이선화, 신지영, 천성문, 2012; 김병화, 송정아, 2014; 김순숙, 2012; 나남숙, 이인수, 2017; 남궁임, 2009; 배선영, 이인수, 2018; 신현정, 홍혜영, 2018; 이병은, 김세경, 천성문, 2017; 이유허, 2011; 오종현, 2016; 이진아, 이인수, 2016; 한영숙, 2007). 즉,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법(긍정적 감정표현, 관심과 이해, 초점 유지)을 사용하여 대처하고(김순숙, 2012; 나남숙, 이인수, 2017), 자신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낮추어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보았다(신현정, 홍혜영, 2018). 그러나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아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타인과 융합하려는 특성이 많아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한영숙, 2007; 오종현, 2016).

자기분화와 원가족의 건강성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으로부터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만족도가 높고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유희남, 김영희, 2011; 이종원 2002; 임영례, 2018; 임준호, 2017).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현재의 결혼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높게 보인다(김병화, 송정아, 2014; 조은경, 정혜정, 2009). 그러나 원가족과 결속력 뿐만 아니라 가계계승 작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원가족과의 관계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부부갈등과 결혼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성장과정 중에 문화적 맥락의 정통성과 원가족 중심의 정서를 다세대 전수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보다 높게 나타난다(권선림, 이선화, 신지영, 천성문, 2012; 김명식, 2017; 이진아, 이인수, 2016).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자기분화는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김순숙, 2012).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분화정도를 나타내는 대인관계적차원의 자아통합 기능에서 남성은 배우자와 가족을 타인이라는 개념에서 제외시켜 생각하므로 남성의 자아통합 기능이 높다하더라도 부부갈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양여진, 2015).

이와 같이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는 자기분화는 부부갈등상황에서 심리내적차원의 지적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불균형하여 감정반응이 높고, 대인관계적차원에서 자아통합기능의 낮은 자기분화수준은 정서적 단절이 많고 부부의 융합을 크게 하여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

6.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의 관계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상호적인 것으로, 대화방식, 성적 만족, 애정 표현, 가사분담, 자녀양육과 같이 여러 부분에서 생기는 대립이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거나 완화시켜 부부의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태영, 김선희, 유진희, 안현아, 2012; 황민혜, 고재홍, 2010).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무엇을 의사소통하는가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경우 서로의 말을 적극 경청하고 서로의 관점과 감정을 잘 수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은아, 이정우, 2003; 황민혜, 고재홍, 2010). 또한 자기의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가 의사표시를 적게 하고 부정적 의사소통(비난, 경멸, 방어, 답쌓기)을 하는 부부보다 부부간의 만족 수준이 높고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다. 이것은 부부간 차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을 긍정적 의사소통(경청, 이해, 개방적인 자기표현)이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권윤아, 김득성, 2008; 박영화, 고재홍, 2005; 황민혜, 고재홍, 2010).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부부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질 향상이나 삶의 행복감 증가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친밀감이 유지되면 중년기의 기혼남녀들은 부부관계에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최연실, 2007).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친밀하고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남성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서표현의 부족을 남성의 특징으로 여긴다.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는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어 부부간의 대화부족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주희, 이선화, 2015). 더욱이 신혼 때의 갈등이 미해결상태로 지속되어 이어왔다면 의사소통 방식은 더욱 중요하다(황민혜, 고재홍, 2010). 그러므로 중년기에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가 친밀감을 유지하고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국남성은 자신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도록 사회화되어왔기 때문에 친밀한 부부관계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중요하다(이주희, 이선화, 2015; 조혜숙, 2013).

7.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부부의사소통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만족과 부부친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atir(1972)는 부부 각자가 원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규칙과 행동, 규범들이 현재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김정민, 2011; 송정아, 1996). 이를 다세대 정서체계 차원으로 설명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원가족에서의 관계 경험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부부간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갈등을 일으키고 의사소통의 감소 또는 중단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자기분화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부관계는 정서적 친밀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 배우자의 요구와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배우자의 말을 적극 경청하고 이해하려 하며 자신 또한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배우자의 감정에 공감적으로 반응하여 부부친밀감을 유지하고 부부만족과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킨다(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박태영, 김선희, 유진희, 안현아, 2012; 어항숙, 2016; 이지민, 2013).

심리내적으로 낮은 분화수준을 가진 개인은 정서적 불안정으로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해 확신이 없고 불안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하려하고, 자신의 기대나 욕구를 배우자가 알아서 채워주기를 바라며, 어린 시절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여 부부관계에서 원가족과의 역동을 반복하고 자신의 부모를 배우자에게 투사한다. 이러한 내면의 결핍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를 향한 의존도는 상승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반면 융합되어 있는 부부는 자신과 융합되어 있는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김정민, 2011).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융합은 정서적 단절로 이어져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2).

8.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자기분화와의 관계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기분화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가족의 분화경험,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을 연구한 이지민(2013)은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가 역기능적이었을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고 형성된 의사소통이 부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부부갈등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한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의 경청, 이해, 개방적인 자기표현은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보았다(한영숙, 2007; 홍순건, 채규만, 2010; 황민혜, 고재홍, 2010).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기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특히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세 변인의 통합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변인의 관련성을 보고, 자기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자기분화, 부부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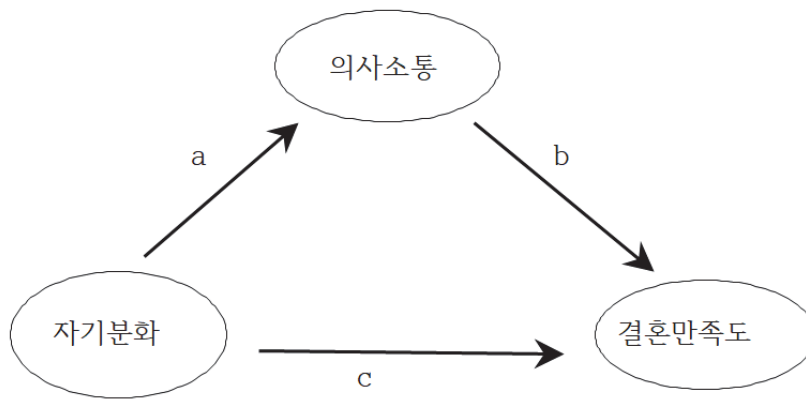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자기분화,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간에 상관관계는 유의한가?
2.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 1-1. 자기분화는 긍정적 의사소통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1-2. 자기분화는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1-3.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2. 긍정적 의사소통은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모형】



<그림 1>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기혼남녀로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의 응답자 수는 총 280명으로, 결혼만족도는 결혼초기나 신혼기에 가장 높고, 자녀 양육기 동안 감소하며 자녀가 독립할 때 다시 개선되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 결혼기간을 5년 이상을 연구대상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김미령, 2009; 박태영, 2005). 수집된 자료에서 결혼상태가 이혼이거나 별거인 경우 15명,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1명, 기호 표시 2명을 제외하고 총 2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권정혜·채규만(1998)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총 160문항으로 1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불만족 척도 12개의 문항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20번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는 높다. 현미나(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에서도 .92로 나타났다.

2)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Korean Self Differentiation Inventory)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혜정과 조은경(2007)은 국내 제석봉(1989)의 척도에서 6문항, 전춘애(1994)의 척도에서 4문항, 국외 Skowron과 Schmitt(2003)의 DSR-R 척도에서 25문항, Licht와 Chabot(2006)의 Ceds 척도에서 3문항을 바탕으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는 가족중심적 집단주의 문화를 나타내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척도이며, 관계성과 연결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가족주의 문화특성을 고려한 척도이기도 하다(이종원, 옥선화, 2015, 하상희, 2008).

이 척도는 2개의 차원과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차원은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으로 나뉜다. 차원별 하위요인으로 심리내적 차원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이며, 대인관계적 차원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이다. 이에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정서적 융합'을 더하여 모두 5개 하위요인이며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에서의 6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입장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

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에 관한 문항은 모두 역채점한다. 이정희(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1>와 같다.

-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은 정서적인 홍수(emotional flooding)를 경험하거나 불안하고 과민해지게 하는 타인과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로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정도 등을 나타내는 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 자기 입장(I position)은 타인이나 상황에서 정서적 입력을 받게 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8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 휩쓸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을 방어하려는 행동,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두려는 행동 등을 나타내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은 높음을 나타낸다.
-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며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개입된 정도를 말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갈등처리방식, 의견 등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등 자신의 신념이나 호기심은 거의 없고 지나치게 독단적이거나 순종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한다.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수준은 높음을 나타낸다.
-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은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 관계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1. 자기분화 척도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	문항번호	신뢰도
심리내적	정서적 반응	1*, 5*, 10*, 15*, 20*, 22*, 27*, 30*, 35*	.82
	자기입장	4, 8, 13, 18, 25, 29, 33, 38	.77
대인관계	타인과 융합	3*, 7*, 12*, 17*, 24*, 32*, 37*	.84
	정서적 단절	9*, 14*, 19*, 26*, 34*	.69
심리내적/ 대인관계	정서적 융합	2*, 6*, 11*, 16*, 21*, 23*, 28*, 31*, 36*	.85
	전체	38	.91

*역채점 문항

3) 의사소통 척도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척도는 심혜선(2001)이 사용한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를 사용하였다. 부부 의사소통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9개 문항과 부정적 측면을 묻는 11개 문항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경청하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반영한다. 본 척도는 원래 4점 Likert 척도방식이었으나 본 연구 의도에 맞게 6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2번, 4번, 7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20번의 11개 문항

은 역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함을 보여준다. 박지은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SSWUIRB 2019-001).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3주간 서울, 경기도, 전라도 및 경상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기혼남녀로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였다. 응답자들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도중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설문을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으로 23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한 뒤, 전화번호는 모두 폐기하였다.

G*Power program 3.1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증력 .95, 효과크기 .15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84명이었다. 총 280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총 25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함께 자기분화(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와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분화(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와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분화(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작한 PROCESS(version 3.2) Macro(모델 4)를 통해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매개효과에 대한 정상분포 가정의 위반 가능성이 낮고, 낮은 검증력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함으로써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는 95%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25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 <표 2>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101명(40.1%), 여자가 151명(59.9%)으로 252명의 중년기 기혼남녀이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46~50세가 78명(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1~55세 74명(29.4%), 41~45세 73명(29.0%), 56~59세 27명(10.7%)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졸이 113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54명(21.4%), 전문대졸·대학중퇴 43명(17.1%), 고졸 40명(15.9%), 중졸 2명(0.8%)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은 기타가 63명(2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과 무직이 각각 47명(18.7%), 사무직 38명(15.1%), 자영업 24명(9.5%), 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각각 12명(4.8%), 생산직이 각9명(각 3.6%)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1만원-500만원이 81명(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1-800만원 76명(30.2%), 801-1000만원 48명(19.0%), 300만원 미만 33명(13.1%), 1000만원 이상 14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대상자들의 결혼기간은 6-10년이 29명(11.5%), 11-15년 48명

(19.0%), 16-20년이 67명(26.6%), 21-25년이 각 62명(각 24.6%), 26-30년 40명(15.9%), 31-35년 6명(2.4%)명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대상자들의 결혼형태는 연애가 185명(73.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매반·연애반 45명(17.9%), 중매 18명(7.1%), 기타 4명(1.6%)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대상자들의 자녀수는 2명이 150명(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명 44명(17.5%), 3명 41명(16.3%), ‘아직 없음’ 16명(6.3%), 4명 이상 1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52)

범주	내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01	40.1
	여성	151	59.9
연령	41~45세	73	29.0
	46~50세	78	31.0
	51~55세	74	29.4
	56~60세	27	10.7
학력	중졸	2	0.8
	고졸	40	15.9
	전문대졸·대학중퇴	43	17.1
	4년제 대졸	113	44.8
	대학원 이상	54	21.4
직업	무직	47	18.7
	학생	12	4.8
	생산직	9	3.6
	사무직	38	15.1
	관리직	12	4.8
	전문직	47	18.7
	자영업	24	9.5
	기타	63	25.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3	13.1
	301~500만원	81	32.1
	501~800만원	76	30.2
	801~1000만원	48	19.0
결혼기간	1000만원 이상	14	5.6
	6~10년	29	11.5
	11~15년	48	19.0
	16~20년	67	26.6
	21~25년	62	24.6
	26~30년	40	15.9
결혼형태	31~35년	6	2.4
	중매	18	7.1
	연애	185	73.4
	중매 반·연애 반	45	17.9
자녀수	기타	4	1.6
	아직 없음	16	6.3
	1명	44	17.5
	2명	150	59.9
	3명	41	16.3
전체	4명 이상	1	0.4
		252	100.0%

2)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에 대한 성별, 결혼기간, 학력, 결혼형태, 나이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혼기간은 '20년 이상'과 '20년 이하'로 학력은 '대졸 이하'와 '대졸 이상', 나이는 '40대'와 '50대', 결혼형태는 '중매'와 '연애'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에 대한 '가구 월소득'은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800만원', '800만원 이상'으로, '자녀 수'도 1명, 2명, 3명으로 재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기간, 학력, 나이, 결혼형태, 가구 월소득, 자녀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자기분화, 긍정적 의사소통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결혼만족도는 남성 집단이 평균 3.75($SD=.551$), 여성 집단이 3.38($SD=.614$)로 나타나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775, p<.001$). 성별에 따른 자기분화($t=.717, p<.474$), 긍정적 의사소통($t=1.362, p<.174$)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집단 수준의 차이

(N=252)

			Mean	SD	t/F	p
성별	결혼만족도	남	3.751	.551	4.775	.000***
		여	3.388	.614		
	자기분화	남	3.704	.603	.717	.474
		여	3.651	.560		
	의사소통	남	4.161	.673	1.362	.174
		여	4.029	.805		

(표 계속)

(표3 계속)

			<i>Mean</i>	<i>SD</i>	<i>t/F</i>	<i>p</i>
나이	결혼만족도	40대	3.493	.632	-1.277	.203
		50대	3.594	.586		
	자기분화	40대	3.621	.561	-1.732	.084
		50대	3.749	.594		
	의사소통	40대	4.095	.752	.330	.742
		50대	4.062	.766		
결혼 형태	결혼만족도	중매 연애	3.572 3.518	.586 .624	.601	.548
		자기분화	중매 연애	3.708 3.661		
	의사소통	중매 연애	4.090 4.073	.647 .787	.154	.878
		결혼만족도	1명	3.479		
	2명		3.523	.584		
	3명		3.678	.669		
자녀수	자기분화	1명	3.684	.637	.198	.820
		2명	3.667	.536		
		3명	3.731	.640		
	의사소통	1명	4.047	.847	.390	.677
		2명	4.124	.726		
		3명	4.018	.850		
학력	결혼만족도	대졸 이하	3.533	.668	-.095	.924
		대졸 이상	3.543	.600		
	자기분화	대졸 이하	3.686	.650	.212	.832
		대졸 이상	3.664	.579		
	의사소통	대졸 이하	4.000	.783	-.651	.516
		대졸 이상	4.085	.749		
결혼 기간	결혼만족도	20년 이하	3.505	.642	-.865	.388
		20년 이상	3.572	.577		
	자기분화	20년 이하	3.622	.578	-1.604	.110
		20년 이상	3.739	.571		
	의사소통	20년 이하	4.047	.763	-.829	.408
		20년 이상	4.127	.748		
월소득	결혼만족도	500만원 이하	3.525	.611	.800	.450
		800만원 이하	3.482	.604		
		800만원 이상	3.613	.637		
	자기분화	500만원 이하	3.672	.602	.031	.970
		800만원 이하	3.661	.566		
		800만원 이상	3.685	.551		
	의사소통	500만원 이하	4.058	.764	.330	.596
		800만원 이하	4.048	.689		
		800만원 이상	4.166	.823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자기분화(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융합, 정서단절, 정서융합)와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 중 정서적 반응($M=4.18$, $SD=.7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서단절($M=4.13$, $SD=.92$), 타인융합($M=3.99$, $SD=.84$), 자기입장($M=3.70$, $SD=.68$), 정서융합($M=3.18$, $SD=.83$)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M=4.08$, $SD=.75$ 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M=3.53$, $SD=.6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왜도는 ± 2 , 첨도는 ± 8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한다(구동모, 2017; 이일현, 2019).

표 4.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N=252)				
	<i>Mean</i>	<i>SD</i>	왜도	첨도
자기분화	3.672	.577	.248	-.196
정서적 반응	4.183	.750	-.073	-.468
자기입장	3.706	.684	-.281	-.352
타인융합	3.996	.841	-.006	-.347
정서단절	4.130	.921	-.082	-.583
정서융합	3.182	.830	.383	-.009
의사소통	4.082	.756	-.380	.210
결혼만족	3.534	.615	-.371	-.360

3.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자기분화(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융합, 정서단절, 정서융합)와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 관계성을 제시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계수 값은 각 변인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정도를 나타내며 ± 0.5 이상이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동모, 2017; 성태제, 시기자, 2017; 이일현, 2019).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N=252)

	1	1-1	1-2	1-3	1-4	1-5	2	3
1. 자기분화	1							
1-1. 정서적 반응	.765**	1						
1-2. 자기 입장	.600**	.307**	1					
1-3. 타인과 융합	.845**	.577**	.485**	1				
1-4. 정서적 단절	.570**	.394**	.056	.334**	1			
1-5. 정서적 융합	.843**	.506**	.350**	.676**	.423**	1		
2. 긍정적 의사소통	.445**	.280**	.254**	.269**	.646**	.269**	1	
3. 결혼만족도	.373**	.241**	.204**	.201**	.594**	.221**	.718**	1

** $P < .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기분화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73, p < .01$).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모두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01 - .594, p < .01$), 특히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은 결혼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49, p < .01$).

둘째, 자기분화는 긍정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445,$

$p < .01$). 또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254 - .646$, $p < .01$), 특히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646$, $p < .01$).

셋째,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718$, $p < .01$). 이로써, 결혼만족, 긍정적 의사소통, 자기분화는 변인 간 모두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매개효과 검증

1)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단순매개모형 모델4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분화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 250)} = 61.755$, $p < .01$).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분화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583$, $t = 7.858$, $p < .001$). 즉,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분화와 긍정적 의사소통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2, 249)} = 134.120$, $p < .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B = .559$, $t = 14.008$, $p < .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분화($B = .071$, $t = 1.366$, $p = .1733$)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분화수준이 긍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의사소통 또한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기분화수준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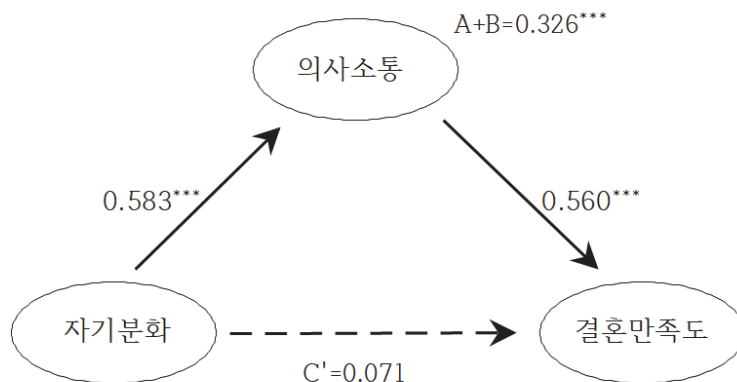
표 6.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N=25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 ²
긍정적의사소통	자기분화	.583	.074	7.858***	61.755***	.198
	결혼만족도	.071	.052	1.366	134.120***	.519
결혼만족도	긍정적의사소통	.560	.040	14.008***		

*** $p < .001$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모식화하며 각 경로의 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p < .001$, C': 직접효과, A+B: 간접효과

<그림 2> 최종모형

자기분화와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은 5000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자기분화의 전체점수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326$, 95% CI=.240~.417). 즉, 자기분화 수준이 긍정적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하였을 때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1.9%로 나타났다.

표7. Bootstrapping결과

경로	<i>B</i>	<i>SE</i>	(N=252)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기분화총합 → 긍정적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326	.045	.240	.417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2) 자기분화의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긍정적 의사소통은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고 있으므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도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과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단순매개모형 모델4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1) 정서적 반응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 250)}=21.200, p<.001$).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282, t=4.604, p<.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긍정적 의사소통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2, 249)}=133.119, p<.001$).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B=.574, t=15.376,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적 반응($B=.036, t=.945, p=.34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서적 반응의 1단위 증가는 .282단위의 긍정적 의사소통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반응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정서적 반응의 1단위 증가는 .036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긍정적 의사소통의 1단위 증가는 .574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2) 자기입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입장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 250)}=17.170, p<.001$). 즉,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입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282, t=4.144, p<.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입장과 긍정적 의사소통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2, 249)}=132.471, p<.001$).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B=.579, t=15.607,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자기입장($B=.021, t=.515, p=.607$)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입장의 1단위 증가는 .280단위의 긍정적 의사소통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

화의 하위요인인 자기입장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자기입장의 1단위 증가는 .021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긍정적 의사소통의 1단위 증가는 .579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 8. 자기분화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N=25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 ²
긍정적 의사소통	정서적 반응	.282	.061	4.604***	21.200***	.078
결혼만족도	정서적 반응	.036	.038	.945	133,119***	.517
	긍정적 의사소통	.574	.037	15.376***		
긍정적 의사소통	자기입장	.280	.068	4.144***	17.170***	.064
결혼만족도	자기입장	.021	.041	.515	132.471***	.516
	긍정적 의사소통	.579	.037	15.607***		

* $p < .05$, ** $p < .01$, *** $p < .001$

(3) 타인과 융합이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타인과 융합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 250)}=19.428, p < .001$). 즉,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타인과의 융합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241, t=4.407, p < .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과 타인과 융합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2, 249)}=132.233, p < .001$).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 ($B=.581, t=.037, p < .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타인과의 융합의 영향 ($B=.006, t=.187, p=.85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타인과의 융합이 1단위 증가하면 .242단위의 긍정적 의사소통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융합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타인과의 융합이 1단위 증가하면 .006

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긍정적 의사소통의 1단위 증가는 .582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4) 정서적 단절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단절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1, 250)}=179.206, p<.001$). 즉,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단절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530, t=13.386, p<.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단절과 긍정적 의사소통의 회귀모형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2, 249)}=148.610, p<.001$).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단절($B=.149, t=3.990, p<.001$)과 긍정적 의사소통($B=.469, t=10.222,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정서적 단절수준의 1단위 증가는 .531단위의 긍정적 의사소통수준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정서적 단절수준의 1단위 증가는 .149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 증가를, 긍정적 의사소통의 1단위 증가는 .466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서적 단절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5) 정서적 융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융합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1, 250)}=19.532, p<.001$). 즉,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융합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245, t=4.419, p<.001$).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융합과 긍정적 의사소통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2, 249)}=132.625,$

$p < .001$).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B = .577$, $t = 15.499$, $p < .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적 융합($B = .022$, $t = .644$, $p = .520$)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서적 융합의 1단위 증가는 .245단위의 긍정적 의사소통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융합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정서적 융합의 1단위 증가는 .022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긍정적 의사소통의 1단위 증가는 .577단위의 결혼만족도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 9. 자기분화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N = 252$)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2
긍정적의사소통	타인과 융합	.242	.055	4.408***	19.428***	.072
결혼만족도	타인과 융합	.006	.034	.187	132.233***	.515
	긍정적 의사소통	.582	.037	15.614***		
긍정적의사소통	정서적 단절	.531	.040	13.387***	179.207***	.418
결혼만족도	정서적 단절	.149	.037	3.990***	148.611***	.544
	긍정적 의사소통	.466	.046	10.222***		
긍정적의사소통	정서적 융합	.245	.056	4.420***	19.532***	.073
결혼만족도	정서적 융합	.022	.034	.644	132.625**	.516
	긍정적 의사소통	.577	.037	15.500***		

* $p < .05$, ** $p < .01$, *** $p < .001$

3)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자기분화의 모든 하위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매개효과 Bootstrapping 결과

(N=252)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반응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162	.036	.090	.232
자기입장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162	.037	.090	.235
타인과 융합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141	.031	.080	.202
정서적 단절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247	.030	.192	.309
정서적 융합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142	.033	.079	.208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이와 같이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자기분화 하위요인(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융합)별로 검증한 결과, 정서적 단절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단절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도로 가는 완전매개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자기

분화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자기분화가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제언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긍정적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긍정적 의사소통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장 과정 중에 문화적 맥락의 정통성과 원가족 중심의 정서를 다세대 전수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권선림, 이선화, 신지영, 천성문, 2012; 김명식, 2017; 이진아, 이인수, 2016).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만족을 보였다(조혜진, 2001; 홍순건, 채규만, 2010; Boss & Gurko, 1994; Tang 1999).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을 연구한 Mackey와 O'Brien(1991)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결혼초기와 자녀양육기간, 그리고 결혼 후기까지 아내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Gottman(1999)의 이론을 중심으로 건강한 부부의 특징을 연구한 홍순건과 채규만(2010)은 남편의 지시적인 태도와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사소통 방식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정경주와 정미경(2016)은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여성이 남성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적응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더하여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을 연구한 김민희와 민경환(2007)은 전통적으로 친화적이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어져 온 여성에 비해 남편이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또한 부부관계의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진아와 이인수(2016)는 성취지향적이고 욕구지향적인 남편의 자기효능감이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관계가 부부중심의 만족보다는 집단주의적이고 가족주의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하는 자녀 양육, 가사노동, 원가족의 문제를 반영하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가정에서 여성보다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결혼생활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간 관계나 결혼생활을 남에게 좋게 보이게 하려는 한국 남성들의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한 경향성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만족과 높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던 학력과 소득에 관한 유의미한 관련성이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권정혜, 채규만, 1999; 김명희, 최연실, 2007; 김영애, 김경신, 2013; 조성희, 박소영, 2010; 홍구화, 서영옥, 2010).

둘째, 결혼만족도, 자기분화, 의사소통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융합과도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년기 기혼남녀들의 결혼만족과 자기분화, 그리고 긍정적 의사소통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분화와 긍정적 의사소통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높아 배우자의 감정에 공감적으로 반응하여 부부친밀감을 유지하고 부부만족과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분화가 의사소통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정택, 심혜숙, 1992; 박은아, 이정우, 2003; 이소미, 고영건, 2006; 이주희, 이선화, 2015; 조혜숙, 2013; 황민혜, 고재홍, 2010). 또한 자기

분화는 결혼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병화, 송정아, 2014;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오종현, 2016; 이봉은, 김세경, 천성문, 2017; 한영숙, 2007; 조은경, 조혜정, 2009).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와 긍정적인 의사소통 사이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권윤아, 김득성, 2008; 박은아, 이정우,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생각할 때, 의사소통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확인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갈등과 위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한다할 수 있겠다.

셋째,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은 모두 통계적으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친밀함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어 부부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부부친밀감을 유지시켜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원가족과의 경험이 역기능적이었음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은 원가족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고 학습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반복되어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자기분화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은 향상되어 결혼만족도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많아지고 부부간의 부부친밀감이 견고해지면 부부관계는 안정되어 결혼만족도 또한 향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정숙, 2009; 김정민, 2011;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오종현, 2016; 이종원,

2002; 임영례, 2018; 임준호, 2017). 따라서 자기분화수준이 직접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부부의 의사소통수준에 따라 결혼만족수준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자기분화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결혼만족을 높이기 위해 부부간 의사소통 기술 및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을 제외한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관계, 정서적 융합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을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단절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기분화는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반응은 사고와 감정의 불균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도 감정적이거나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양명숙, 이선희, 2012). 이러한 감정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은 긴장과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더욱 역기능적인 자기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간 갈등대처능력과 연관된다고 보았다(이종원, 옥선화, 2015). Kerr와 Bowen(1988)은 적응적인 관계를 위해 개별성과 연합성의 조화가 필요하며, 두 욕구 중 한쪽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발달하지 못하면 역기능적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원가족에서 경험한 개별성과 친밀성의 정도가 개인의 분화에 영향을 미쳐 성인된 후 부부간의 관계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애정수준은 낮고 통제수준이 높거나 또는 과잉보호였을 경우 불안은 증가되고 자기분화수준은 낮아진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서 불안과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이 낮아 반응적으로 짜증과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감정조절과 분명한 사고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대적 감정을 주도적으로 발달시킨다. 이렇게 낮은 자기분화수준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의사소통기술 수

준이 낮고,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관계에서 의존성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정성경, 김정희, 2004; Sabatelli, Bartle-Haring, 2003; Skowron, Stanley, Shapiro, 2009).

다시 말하면 부부가 낮은 자기분화수준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갈등과 긴장상황에서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고 감정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하는 융합은 불안을 가중시켜 삼각관계를 형성하거나 갈등 가운데 상대를 비난하며 갈등에 지쳤을 때 거리두기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강도에 따라 의사소통의 감소와 중단을 가져오며 이러한 패턴은 별거나 이혼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Bowen, 1976).

자기입장은 특정한 상황이나 타인의 압력에도 불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유지하여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는것이라 하였다(정혜정, 조은경, 2007). 그러나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기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명신과 이계민(2013)은 파트너가 자기입장을 취할 때 이를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의 제시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권윤아와 김득성(2008)은 부부가 원가족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부터 거슬리는 자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시키거나 또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사과하기를 강요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순환원리로 '폭력의 대물림'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Infante(1989)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부부의 의사소통과정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언어적 표현력이 없을 때 언어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감정과 사고의 균형으로 감정적인 자제력을 가지고 관심의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부의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역효과는 감소된다고 보았다. 즉, 의사소통 과

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을 분명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자기주장을 사용하고 거리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권윤아, 김득성, 2008;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타인과의 융합은 중요한 대인관계가 와해되거나 상실될까봐 두려움을 지니고 이러한 두려움에 따르는 불안에 대처하고자 타인과 융합하는 것이다. Skowron과 Schmitt(2003)은 관계 상실에 대한 지나친 몰두는 관계불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불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Kerr와 Bowen(1988)은 불안이 증가하면 할수록 관계 안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동질화의 압력은 강해져 의존과 융합을 시도한다고 보았다. 즉, 불안이 특정수준에 다다르면 불안은 사려 깊은 반응과 논리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자신을 타인과 융합시키고자 하므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두 자기가 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한 배우자가 공동자기를 위해 지배적인 결정권자가 되고 다른 배우자는 그 상황에 적응함으로써 스스로 기능하기와 결정하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은 문제해결력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자신들의 부적합성을 자녀에게 투사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에 발화점이 된다(김은자, 정은자, 신유순, 2016; 정성경, 김정희, 2004; Bowen, 1976; Becvar & Becvar, 1996). 그러므로 이러한 패턴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약간의 긴장과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신체적, 정서적 혹은 사회적 질병을 발현시키며 음주나 외현적 행동, 그리고 무책임한 행위와 같은 문제를 유발시킨다(Bowen, 1976). 그러나 부부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낮아지고 상호간 밀착정도에도 변화를 가져와 서로의 분화수준을 높이게 된다(남순현, 2002; 조은경, 정혜정, 2009; 한영숙, 2007).

정서적 단절은 가족으로부터의 미분화로 융합된 개인이 애착형성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조율하기보다 정서적 단절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정서적 단절은

과거 상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성경, 김정희, 2004; 정은숙, 2019). 즉, 미해결된 과거의 상처, 수치심, 서운함, 억울함, 생존과 불안, 서툰 공격성과 어색한 친밀감, 통제와 조종으로 나타나는 정서단절로 인해 고통과 걱정, 분노를 경험하면 이러한 정서가 유발하는 고통을 피하고자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꺼리고 대화를 피하며 정서적 지지와 연결을 차단하여 자기를 보호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정서적 상호작용에 의한 위축으로 친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혼자라는 정서에 압도되기도 한다(유숙인, 서미아, 2015; 이종원, 옥선화, 2015; 정성경, 김정희, 2004).

Bowen(1976)은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자녀의 상호작용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았다. 곧 자기분화수준은 원가족에서 전이된 정서적 건강으로, 자녀들의 인식속에 남겨진 원가족에서의 생활양식이 현재 가족 안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자녀의 삶에서 재현된다. 특히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가 부모와 심리적 대인관계적으로 분리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준호, 2017). 따라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배우자는 단순히 배우자로서의 의미 외에 원가족의 의미가 포함되어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많고, 배우자의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긴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김중호, 1998; 남순현, 한성열, 2002; 유숙인, 서미아, 2015; 임행정, 2014; McGoldrick, 1980).

이혼 청구자 부부의 원가족 경험과 이혼 장애요인을 연구한 임행정(2014)에 의하면, 이혼 청구자 부부들은 원가족 부모로부터 경험한 정서적 단절로 낮은 자기분화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기분화수준이 부부간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고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에서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단절이 자녀에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결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나 감정이 적어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이혼을 쉽게 수용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백영

수, 2003; 이영희, 20110; 정윤경, 김재엽, 2005). 특히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단절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문화에서 집단의 조화와 타인을 배려하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과함으로써 여성은 독립된 존재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집단의 조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며, 남성 역시 내적 갈등이나 고민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도록 사회화되면서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은석, 이지연, 2018; 백정미, 2018; 이주연, 정혜정, 2009).

한편, 정서적 융합은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수준이 향상되어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부는 상호작용과 정서적 소통을 위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이해하며 이를 배우자에게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생각할 때 부부가 사용하는 이러한 패턴은 원가족 내에서 정서적 관여 및 긍정적 해결 방법을 배울 기회가 적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패턴은 원가족에서의 경험자체보다 원가족의 경험과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에 의해 예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Sabatelli, Bartle-Haring, 2003; Baptist, Thompson, Norton, Hardy & Link, 2012). 즉, 부부는 갈등과 긴장상황에서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수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결혼만족도수준과 직결되므로, 부부간 정서적 재정립과 함께 부부만족, 결혼만족을 위해 긍정적 의사소통(경청, 이해, 개방적인 자기표현)은 필요하다(유숙인, 서미아, 2015; 이종원, 옥선화, 2015; 정성경, 김정희, 2004). 특히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과 직결된다.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중년기 기혼남녀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정적 차원을 이해하고 반응함으로써 부부 간에 친밀감과 신뢰감이 증가하고 결혼만족도도 증진된다. 따라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세대적 특성으로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재정, 부모, 친·인척에 관한 대화를 하기 보다는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개

방적이고 공감적인 대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면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결혼생활의 질은 의사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학습된 것으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숙, 2008; 박태영, 김선희, 유진희, 안현아, 2012; 홍순건, 채규만, 2010). 그러므로 부부만족과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을 위해 원가족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가족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원가족 경험에서 전수된 행동패턴과 미해결된 과제를 확인 함으로써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고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이성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어항숙, 2016; 이소미, 고영건, 2009; 이종원, 옥선화, 201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혼만족 수준을 높이고 원활할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면 효과가 지속적일 수 없으므로 자기분화와 함께 다루어야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도 Bowen의 개념인 자기분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의사소통을 다루어야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재혼부부 자기분화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박희정(2018)은 자기분화 프로그램이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재혼부부들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여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Satir 치료 모델의 적용을 연구한 정문자(2000)는 내담자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원가족 삼인군”기법이 내담자로 하여금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Satir 부부관계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김정민(2011)은 Satir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가족조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과정, 역할극, 부부친밀감의 만다라 작업이 참여자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Gottman이론에 근거한 예비부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회복탄력성, 성인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지현영(2017)은 건강한 관계의 집 모형(의사소통)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로 부부갈등을 연구한 송동립(2009)는 부부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원칙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심리·정신적인 차원의 작업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들은 자기분화촉진과 의사소통의 향상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지속적일 수 있도록 자기분화 교육을 통해 부부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해결된 과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자기분화 촉진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상담자는 치료적 개입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내담자가 자기분화 수준과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를 탐색하고 통찰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감과 온전한 수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드러내기 두려웠던 감정들을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경험하는 감정들을 반영하며 확인하고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부부 간 상호작용관계를 재정립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상담자는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담자 자신의 자기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상과 같이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

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분화 연구는 결혼초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결혼한 기혼남녀로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40-50대의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의사소통수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결혼관계를 친밀하게 갖지 못하는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부부관계의 발전 뿐 아니라 결혼생활의 만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중년기 남성의 경우 부부관계 경험, 결혼만족도에서 오는 행복감과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중년의 남성 또한 중년 여성만큼 부부관계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최승미, 김지연, 2016), 아내 또한 남편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긍정적 의사소통은 부부 상호적 관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정은, 이영호, 2002; 장문선, 김영환, 2001).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성이 강요되는 성역할 사회화로 과도하게 성에 맞는 역할을 내면화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발달단계 특성과 함께 남성성의 영향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되는 정서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서적 유대감과 부부친밀감을 높이는 건강한 부부관계로 결혼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로 고르게 할당표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각 지역의 응답자의 표집

이 특정 시기에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직업, 지역)이 편중되어,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중년기 기혼남녀로 대표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후에는 직업과 지역, 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포하여 표집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아닌 중년기 전체 기혼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부부간 역동을 알아보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부부간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쌍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부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주요변인 뿐 아니라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뿐 아니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척도의 결과만으로 전체 중년 남녀의 결혼만족과 자기분화, 의사소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 뿐 아니라 주요변인의 하위요인 간 면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 수준과 자기분화수준이 얼마만큼 깊게 연관되는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관련 변인을 측정하고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인과관계의 명료함을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전의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강혜숙, 김영희, 2008; 김병화, 송정아, 2014;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바, 보다 많은 수의 표본 수집을 통해 중년기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중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의사소통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중 어떠한 요소들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특히 의사소통의 주제나 양식에 있어 중년기 부부의 특이적인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중년기 부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중년기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개입 뿐 아니라 예방적 개입 역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 개입을 고안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숙, 박정희(2005).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남·녀 대학생의 커플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2), 149-169.
- 강초영(2016).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본 순응과 순종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웬과 위니컷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숙, 김영희(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35-156.
- 강희숙, 양정옥(2012).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부부갈등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183-199.
- 고병인(2000). 보웬(Murrey Bowen)의 가족치료이론으로 본 S부부의 사례 연구. **교수논총**; 16, 98-125.
- 공성숙(2004).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41-171.
- 곽민하, 전해성(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 구동모(2017). SPSS, LISREL, PLE 및 PROCESS-macro를 활용한 기초·조절·매개효과분석 연구방법론. 경기도; 창명.
- 권선림, 이선화, 신지영, 천성문(2012). 부부의 심리적 독립, 자기분화,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5(1), 27-42.
- 권윤아, 김득성(2008). 부부싸움에서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6(10), 83-96.
- 권윤아, 김득성(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Gottman의 네 기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6).101-113.

- 권정혜, 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39-150.
- 김경진(2010).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정란(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05-120.
- 김금희(2016).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연, 양난미(2014).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33(1), 25-50.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명식(2017). 결혼에 관한 7가지 거짓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 95-102.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최연실(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이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23.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2.
- 김민녀, 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11(4), 655-671.
- 김민희, 민경환(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병수(2017). '졸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인물과 사상**; 229, 171-179.
- 김병화, 송정아(2014). 부부의 자기분화가 가족분화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5(3), 47-70.
- 김상구(2015). 중년기 기혼남·녀의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2012). 중년기부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한 현상학 연구. 경북 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김득성(2001).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53-62.
- 김순숙(201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기분화, 자아존중감, 갈등해결 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조영주(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567-588.
- 김애순, 윤진(1993). 중년기 위기감(1);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김애순(1993). 중년기 위기감(2);회고적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 **한국 심리학회지**; 6(1), 75-84.
- 김애순(1993). 중년기 위기감(3);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13(2), 1-14.
- 김영근(2011).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복음과 상담**; 16, 173-202.
- 김영선, 이경재(2015).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184-237.

- 김영수(2018). 중년기 기혼자의 사랑의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의 차이.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김경신(2013). 한국과 중국 중년기 부부관계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가족관계학회**; 18(1), 51-74.
- 김영환, 장문선(2002). 부부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 21(2), 331-347.
- 김윤정, 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 김윤정, 서성희(2005).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25(1), 87-102.
- 김은석, 이지연(2018). 기혼 여성의 자아분화 유형에 따른 정서 문제의 차이: 화병 증상과 정서표현억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9(1),143-165.
- 김은자, 정혜정, 신유순(2016). 노인의 자기분화와 신체적 건강 및 성인자녀과 계가 노년 초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3), 435-457.
- 김정민(2011). Satir 부부관계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19-40.
- 김정숙(2008). 부부의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갈등대처행동,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와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심혜숙(1992).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인간이해**; 13, 33-46.
- 김정택, 심혜숙(1993). 자기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 33-45.
- 김재엽, 김희진, 최장원(2010).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아내 폭력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소통학보**; 13,

39-70.

김중호(1998). 情緒的 斷絶로 인하여 家族症狀과 治療的 接近. **서울장신논단**; 14, 256-276.

김진분, 최규련(2007). 군인부부의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677-1692.

김판기(2010). 보웬의 가족치료와 말리의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가족관계 중심적 목회상담. 장호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201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59-176.

김혜숙(2016).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김혜원, 한소영, 이지연(2017). 중년기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 불안/회피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행동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3(3), 267-297.

김효민, 박정윤(201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본인 및 배우자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31(3), 125-140.

김희경(2006). 중년남성과 중년여성의 우울과 신체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요인 비교. **성인간호학회지**; 18(3). 446-456.

나남숙, 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1),115-136.

남궁임(2009). 자기분화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자기분화 수준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순현(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2), 33-49.

류석진, 조현주(2015).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

- 통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20(1), 213-233.
- 모윤수, 김지현(2016).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91(2), 97-126.
- 모의회(2002).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45-73.
- 문성호(2001). 대상관계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와 자아분화수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2013). 결혼갈등,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21(4), 293-300.
- 박민지(2006).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숙(2012). 개인 가족치료를 위한 애착과 자아분화 이론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수경(2015). 중년기 결혼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건강성,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은아, 이정우(2003).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25-44.
- 박지은(2011).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대처방식에 관한 배우자 의사소통의 영향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2005). 한국인 기혼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상담학연구**; 6(2), 601-619.

- 박태영, 김선희, 유진희, 안현아(2012).이혼위기에 있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 다중사례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0(1), 23-56.
- 배선영, 이인수(2018). 유기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를 통한 정서조절곤란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9(5), 317-336.
- 백정미(2018). 정서중심 부부치료를 중심으로 부부의 정서적 단절과정과 회복과정 분석. **신학논단**; 91,43-69.
- 박현우, 김민, 박정선(2015).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원가족건강성이 연인관계유형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89-216.
- 박희정(2018). 재혼부부 자기분화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영인(2011). 자아분화가 중년부부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3(1),183-192.
- 변지영, 양혜정(2018). 자기자비와 부부관계의 질; 부부 조망수용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1), 1-22.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검증-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 22(4), 1147-1168.
- 서옥희(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해정, 김형모(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59-389.
- 성태제, 시기자(2017). **연구방법론**. 서울;학지사.
- 손숙자(2015). 부부관계 변인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연, 한경혜(2006).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83-102.

- 송동립(2009). 부부 갈등에 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64, 143-171.
- 송정아(1996). 중년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1(1), 113-130.
- 송정아(1996).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고신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1, 5-18.
- 송진경, 채규만(2008). Gottman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부부의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6, 95-125.
- 신현정, 홍혜영(2018). 부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치료**; 30(4), 1327-1353.
- 신혜숙(2002).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관한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2(3), 406-415.
- 심혜선(2001). 도시주부의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가정관리 전략 및 가정생활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신영규(1994). 가족체계 유형과 자기분화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89-103.
- 양명숙, 이선희(2012).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과 결혼만족도 연구-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861-1880.
- 양여진(2015). 중년기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항숙(2016). 부부의 원가족건강성, 자기분화,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정서 지능에 대한 연속적 인과관계 분석. **인문사회** 21; 7(3), 415-436.
- 어항숙, 윤운성(2017). 남편과 아내의 원가족건강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대

- 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22(3), 493-519.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57-80.
- 오명옥, 고효정, 박청자(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1), 17-31.
- 오중현(2016).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 관계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7(2), 509-532.
- 우수희, 송근혜, 조규관(2012).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0(4), 59-80.
- 유가효, 유미순(2017). 부부의 성격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시 부부를 중심으로-. **과학논집**; 43, 15-42.
- 유수진, 류정희(2017).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적 대처의 중다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9(2), 309-327.
- 유숙인, 서미아(2015).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는 중년기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 부부상담 성과연구. **가족과 가족상담**; 5(1), 61-74.
- 유은희, 전춘애(1995). 母의 자기분화수준과 母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유채영, 김정득(2009). 남성배우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277-301.
- 유희남, 김영희(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41-158.
- 이동숙(2008). 부부성장 집단프로그램이 개인 및 관계 성장에 미치는 효과

- 중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81-111.
- 이명신, 이계민(2013).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2(2), 225-271.
- 이민자(201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봉은, 김세경, 천성문(2017). 부부의 자기분화와 부정적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9(5), 1501-1512.
- 이소미, 고영건(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3), 643-658.
- 이승화, 민경화(2015). 부부, 가족상담;중년기 삶의 의미 유형에 따른 분류 및 특성. **상담학연구**; 16(5), 399-415.
- 이원주(2018).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델.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이영숙, 박경란(2011). 부부의 성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731-743.
- 이영희(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원가족분화와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유리, 홍정순(2016). 성인초기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5, 151-165.
- 이은영, 왕은자(2017).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81-503.
- 이유경(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

- 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자, 조옥귀(2016). 선택이론으로 본 부부의 욕구강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현실치료연구**; 5(1), 17-35.
- 이윤주(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원가족분화와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이인수 (2017).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APIM 모델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4), 761-785.
- 이일현(2019).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정란(2007). Bowen의 자기분화와 Winnicott의 참자기의 유사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이영호(2000).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3), 531-548.
- 이정희(2019). 어머니의 자기분화,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과보호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2002). 부부 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옥선화(2015).결혼초기 기혼남녀의 부부갈등 관련변인 연구; 보웬과 Satir 모델의 이론적 연계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3-2.
- 이주연, 정혜정(2009). 노년기 부부의 자기분화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1629-1644.
- 이주희, 이선화(2015). 중년기 기혼남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41-657.
- 이지민(2013). 20-30대 기혼여성의 원가족분화경험,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

- 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23-38.
- 이지은, 윤호균(2007).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12(3), 331-345.
- 이진아, 이인수(2016). 부부관계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85-408.
- 이희윤, 조유현(2015). 부부의 관계신념지각,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만족,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부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4), 62-88.
- 이화자, 최연실(2003). 중년기 부부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Satir 가족치료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11(2), 49-76.
- 임나현, 하규수(2012).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199-214.
- 임영례(2018). 원가족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중년기부부 갈등인지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부부의사소통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준호(2017).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혜(2004). 중년기 여성의 자기분화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행정(2014). 이혼 청구자 부부의 원가족 경험과 이혼 장애요인. **아동가족치료연구**; 13, 87-102.
- 임희정(2014). 치의학 연구에서의 표본크기 산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2(2), 558-569.
- 장문선, 김영환(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

- 회지;임상. 21(2), 331-347.**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성, 서미아(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49-357.**
- 전홍자(2010). Satir 경험적 가족치료와 Fromm의 사랑의 개념을 접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일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2000). 한국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Satir 치료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65-87.**
- 정성경, 김정희(2004). Bowen 이론을 활용한 가족관계 증진 집단상담이 자기분화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3), 823-838.**
- 정영숙(2016). 친밀한 타인 배려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와 그 함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03-133.**
- 정옥분(2016).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윤경, 김재엽(2005).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미혼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협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2, 70-103.**
- 정은(1996).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한 청소년가족상담에 관한 일연구. **사회복지리뷰; 1(1), 119-144.**
- 정은숙(2019). 정서단절 현상을 나타낸 부부의 Satir 빙산일기를 활용한 상담 사례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5(1), 43-69.**
- 정화숙(2013). 중년기 기혼남녀의 마음챙김, 부부 스트레스 및 부부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 395-396.**
- 정혜정, 조은경(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조성희, 박소영(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149-174.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경(2015). 임상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비교 및 통합;개념 정의 및 통계 모형. **한국심리학회지;임상**; 34(4), 1113-1131.
- 조은경, 정혜정(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105-132.
- 조혜숙(2013).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조절효과. **생애학회지**; 3(2), 1-19.
- 조혜진(2001). “노년기 부부의 가족응집성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지혜정(2006). 부부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51-80.
- 지현영(2017). Gottman 이론에 근거한 예비부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의 사소통, 회복탄력성, 성인애착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대학원사학위논문.
- 차근영(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명진, 제석봉(2010). 미혼모와 대학생의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생활자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175-199.
- 천성문, 함경애, 김미옥, 최정아(2018). **상담심리 전공자를 위한 학위논문 작성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최규련(2013). 협동적 결혼기술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행동,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3-12.
- 최명민(1999). 대상관계 부부치료의 이론적 고찰 및 활용. **한국가족치료학회**

지; 7(1), 31-51.

최미영(2015). 중년기 성인애착과 성공적 노화인식과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진, 김기범(2016). **문화심리학**. 경기도; 지식산업사.

최성애(2013). **부부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서울; 해냄.

최승미, 김지연(2016). 중년기 기혼남녀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1(4)**, 683-702.

최주희(2001).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적응연구-결혼 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상희, 정혜정(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3(2)**, 27-38.

하상희(2008). 부모와 자녀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이 대학생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15-132.

하상희, 정혜정(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한나미(2012). 한국인의 사회심리와 대상관계 비교연구:위니콧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서경(2007). 임상 연구 설계 강좌: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대상수 산출. **대한간학회지; 13(2)**, 98-105.

한영숙(2007).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5(2)**, 259-272.

한혜영, 현명호 (2005).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5(4)**, 935-952.

함진옥, 조인주(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 65-97.

- 허미화(2004).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2005).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의한 가족의사소통 효율성 향상에 관한 연구-기독교 가정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미나(2010).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공감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구화, 서영옥(2012).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와 분노에 미치는 효과; 감사의 조절효과. *인문논총*;29, 157-175.
- 홍순건, 채규만(2010). 한국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1(2), 299-316.
- 황민혜, 고재홍(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5(4), 779-800.
- Baptist,J.A., Thompson,D.E., Norton,A.M., Hardy,N.R. & Link, C. D.(2012). “The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emotional processes on conflict styles: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 56-73.
- Bienvenu.M,J.(1970). *Measurement of Marltal Communication.;The Family Coordinator*; 19(1), 26-31.
- Becvar,D.s., & Becvar,R.J.(1996).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Massachusetts:Allyn & Bacon.
- Boss, P. G., & Gurko, R. A.(1994). “The relationships of men and women in marriage”. In J. W. Maddock, M. J. Hogan, A. I. Atonnov & M. S. Matskovsky(Eds). Families before and after perestroika. New York; Guilford.

- Bowen,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 (Eds),
Family therapy, New York;Gardner Press.
- Bowen,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Aronson.
- Burleson,B.R. & Denton,W.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59, 884-902.*
- David,E.S., & Jill,S.S.(1991). *Object Relations Family Therapy*. New
Jersey; Mark Paterson & Associate. 이재훈 역(2006). 대상관계 가족치료
I -이론과 기법-.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David,E.S., & Jill,S.S.(1991). (1991). *Object Relations Couple Therapy*.
Maryland; Jason Aronson Inc. 이재훈 역(2003). 대상관계 부부치료. 서
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David,E.S., & Jill,S.S.(1991).(1995). *The Primer of Object Relations
Therapy*. New Jersey ; Paterson Marsh Ltd. 오규훈, 이재훈 역(2008). 대
상관계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Gottman,J.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 - Based
Marrital Therapy*. New York; Norton.
- Gottman,J.M., & Levenson,R.W.(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737-745.*
- Hamilton,N.G.(1990). *Self And Others;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Maryland; Jason Aronson Inc.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201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자기와 타자. 서울; 학지사.
- Hamilton,N.G.(1996). *The Self And Ego In Psychotherapy*. Maryland;
Jason Aronson Inc.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윤숙경 공역(2008). 심리치료

- 에서 대상관계와 자아기능. 서울; 학지사.
- Hayes,F.A.(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Guilford.
- 이형권 편역(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 Hawikins,J.L. & Johnson,K.(1996). *Perception of behavioral conformity, imputation of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507-511.*
- Infante, D.A., Chandler,T.A., & Rudd, J.E.(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spous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86, 163-177.*
- Jacobson,N.S., & Magolin,G.(1979). *Marital therapy;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nhancing principles*. N. Y. Brenner.
- James,FM.(1990).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New York; Free Press.
- 임혜련 역(2000). *참자기*.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 Karney,B.R., & Bradbury,T.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lever, P. (2005). *Multigenerational stress and nuclear family function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7(2), 233-250.*
- Kerr,M.E., & Bowen,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and London; Norton & Company.
-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Lewis,R., & Spanier,G.(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 Mackey,R.A., & O'Brien,B.A.(1999). *Adaption in lasting marriage. Families in Families in Society, 80*(6), 587-596.
- Michael,S.C.(2004). *Object Realtions And Self Psychology*. Wadsworth ; Cengage Learning. 안석모 역(2015).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서울; CENGAGE.
- McGoldrick,M.(1980). *The joining families through marriage The new couple in E. Car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Noller,P., & Fitzpatrick,M.A.(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832-843.
- Nancy,M.W.(2011).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이기련 역(2018). 정신분석적 진단-성격 구조의 이해. 서울; 학지사.
- Rice,F.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Allyne and Bacon.
- Roberta,M.G.(2004). *The Eight Concepts of Bowen Theory*. Virginia; Roberta M. Gillbert. 김경 역(2018). 보웬이론의 8가지 개념. 서울;학지사.
- Ronald,W.R.(1995). *Family Ties That Bind*.British Columbia;Self-Counsel Press. 남순현 역(2013). 보웬가족평가를 위한 가족치료 자가진단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 Sabatelli,R.M & Bartle-Haring,S.(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159-169.
- Sheehy,G.(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Dutton.

- Skowron,E.A., & Schmitt,T,A.(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Skowron,E.A., Stanley,K.L., & Shapiro,M.D.(2009)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1, 3-18.
- Tang, C. S.(1999). "Marital power and agg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of Hong Kong Chine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6), 586-602.
- Ward,R.A., & Spitze,G.(1998). "Sandwiched marriage:The implications of child and parent relations for marital quality in midlife." *Social Forces*;77(2), 647-666.
- Winnicott,D.W.(1984).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Studies in the Theory Emotional Development-*. New Jersey ; Mark Paterson. 이재훈 역(2000).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ABSTRAC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in Middle Ages on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Mi-Ra, Hy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marit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which are major factors for marriage lives of married men and women in middle ages, and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materials of 252 married men and women of ages 40-60 living in Seoul, Gyeonggi Province, Cholla Province, and Gyeongsang Province, who have been married for at least five year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n the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showed that marital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middle ag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m. Second, positive communication applie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of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middle ages on marital satisfaction. Third,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factors of the self-differentiation showed that positive communic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emotional breakdown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It also played a full mediating effect emotional reaction, self-entry, fusion with others, emotional fu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Keyword ; Self-differentiation, marital satisfaction, emotional cutoff
communication*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41세~59세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되며, 응답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한 문항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귀하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만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및 관리되고, 연구 종료 후 법적 보존기한인 3년 이후에 폐기할 것입니다.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2019년 3월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 유은승

연구자 ; 현미라

I. 본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을 보장할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 (1) 40~45세 (2) 45~50세 (3) 51~55세 (4) 56~59세

3. 귀하의 학력은? ()

- (1)국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대학중퇴
(5)대졸 (6)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 (1)무직 (2)학생 (3)판매서비스직
(4)생산직(숙련공, 반숙련공, 견습공 등)
(5)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6)관리직(기업체 간부, 고급공무원 등)
(7)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약사, 교사 등)
(8)자영업 (9)기타 (_____)

5. 가족의 총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월()만원 정도

(평균소득은 1년치 봉급, 보너스, 수당,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모두 합하여 12달로 나눈 액수이며 여기에는 부인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6.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1)기혼(결혼생활 중) (2) 별거 (3) 이혼 (4)재혼 (5) 기타

7.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8. 귀하는 지금 아내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다?

(1)중매 (2)연애 (3)중매반·연애반 (4)기타(_____)

9. 귀하의 자녀수는?

(1)아직 없음 (1)1명 (2)2명 (3)3명 (4) 4명 이상

**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지도 부탁드립니다.

II. 다음은 결혼만족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현재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해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문
들을 잘 읽고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결혼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3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4	때때로 나는 배우자를 몹시 떠나고 싶었다.					
5	나는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욕구들이 있다.					
6	나는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 적이 있다.					
7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8	우리 결혼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9	우리 결혼생활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문항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12	만일 내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13	나는 때때로 내 결혼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14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					
15	나는 결혼생활에서 거의 불행함을 모르고 지내왔다.					
16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					
17	내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18	배우자와 나는 별거하거나 이혼할 뻔한 적이 없다.					
19	우리 결혼생활이 내가 아는 사람들의 결혼생활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자주 배우자에게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21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낀다.					
22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Ⅲ. 자기분화 척도

다음은 평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해당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지 않다.
4. 조금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N o	문 항	1	2	3	4	5	6
1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2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면, 한동안 마음이 괴롭다.						
3	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종종 확신이 안 선다.						
4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다.						
5	나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는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6	나는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7	내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8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9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 속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지 않다.
4. 조금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No	문항	1	2	3	4	5	6
10	때때로 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						
11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12	나는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13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대부분 내 생각대로 한다.						
14	배우자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15	나는 스트레스가 오래 계속되면,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16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쉽게 그것을 풀지 못한다.						
17	큰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아야 안심된다.						
18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19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때때로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힐 것 같은 때가 있다.						
20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다.						
21	나는 예민한 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잘 받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지 않다.
4. 조금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N o	문 항	1	2	3	4	5	6
22	나는 사람들에게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다.						
23	아직도 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다투고 나면, 기분이 엉망이 된다.						
24	나의 말이나 의견이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잘 바꾸는 편이다.						
25	대부분의 경우 내 감정이나 생각 따위로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26	배우자가 나를 너무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						
27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28	배우자를 포함한 가까운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한다.						
29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30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31	나는 배우자가 내 생각이나 기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32	나는 화가 나면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33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도, 내 감정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지 않다.
 4. 조금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N o	문 항	1	2	3	4	5	6
3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다.						
35	나는 차근차근 따져 생각하기보다 느낌과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36	나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37	내 의견이 배우자나 주위 사람과 비슷해야 안심이 된다.						
38	나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분명한 사고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IV. 의사소통 척도

다음은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의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조금 그렇지 않다.
 4. 조금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N O	문 항	1	2	3	4	5	6
1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2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내면 당황하게 되고 기분이 상하곤 한다.						
3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4	배우자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도 이야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5	나와 배우자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때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다.						
6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7	배우자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 못해준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8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옳다고 믿는 견해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9	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편이다.						
10	나는 대화 중 배우자의 목소리 톤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조금 그렇다. 5.대체로 그렇다 6.매우 그렇다.

N O	문 항	1	2	3	4	5	6
11	진실된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2	배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는 결과 속이 다르게 말을 할 때가 있다.						
13	배우자는 나에게 귀찮게 잔소리를 하곤 한다.						
14	배우자는 가족의 공통관심사나 활동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15	배우자와 어떤 문제를 의논해야 할 경우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 상의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다.						
16	나는 배우자에게 이야기 중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17	배우자가 나로 인해 화가 났을 경우 나에게 일부러 마음 상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18	나의 배우자는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한다.						
19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해 있을 때 배우자는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20	나는 배우자가 화낼까봐 두려워서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						